

# ECHO<sup>#02</sup>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Soyez fier de vous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

#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

vol.2

총괄 편집장 김성해 Kim seong hae

정연주 Jeong yeon ju

Design

남민지 Nam min ji

이승민 Lee seung min

Editor

나중일 Na jung il

윤명은 Yun meyoung eun

윤유미 Yun yu mi

조은진 Jo eun jin

---



# letter from the ECHO #02

안녕하세요.

어느 덧 더위가 가시고 낙엽이 지더니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창간호를 발간하고 'ECHO'에 대한 칭찬과 조언 그리고 축하의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ECHO' 편집진들은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 큰 힘을 받아 제작에 임했습니다.  
이번 호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가사처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이야기를  
멋지게 담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누군가는 감성에 젖어있을 이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감성에 젖어 계시나요?  
이번 10월은 나라에 큰 사건으로 아련한 감성보다는 분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어느 누구나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날이 없을 만큼 멋진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우리의 울림이 멀리 퍼져가길 바라며 'ECHO'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_청명한 가을날 정연주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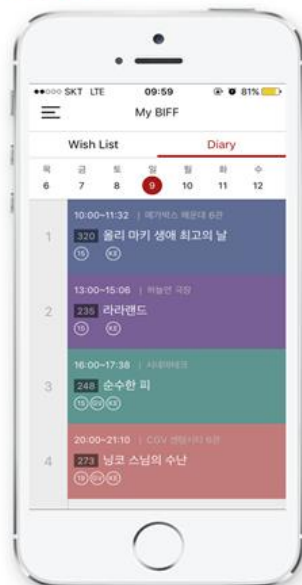
# 2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15 October, 2016

부산  
국제영화제

영화인들을 위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열렸다.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매년 영화제에 참가하지만, 혼자 참가했던 이번 영화제는 그 느낌이 사뭇 달랐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혼자서 즐기다 오고 싶은 사람에게 안성맞춤의 글이 될 것이다.



# 01 영화제 준비 기간



① BIFF 앱

먼저 영화제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건 스케줄에 맞춰 예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매 며칠 전 상영시간표가 극장별, 날짜별로 풀린다. 자기가 영화제에 갈 날짜에 맞춰 시간표를 보고 스케줄을 미리 짜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영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영이 시작된 영화 도중에 들어가는 경우 다른 관객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간단한 요깃거리도 못하고 쫄쫄 굶으며 영화를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위의 해결 방법으로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BIFF 앱을 깔아두라 말하고 싶다. 해당 날짜에 자신이 볼 영화를 다이어리 카테고리에 담아놓는 것도 좋다. 시간과 상영관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다. 때문에 카탈로그나 메모장을 뒤지며 여러 번 확인할 필요가 없다. 짧은 강의 시간표를 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관이 한 곳에 밀집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할 때도 있다. 학과에서 단체로 가게 되면 버스가 있어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극장 간 이동시간도 계산해서 스케줄을 짜야 한다.

그런 다음 스케줄에 따라 예매를 해야 한다. 예매는 개·폐막식 예매와 일반예매가 따로 진행되며, 시간도 각각 다르니 수시로 공지를 확인해서 시간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정시에 풀리는 예매는 꽤 치열하므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단체관람의 경우는 따로 전화로 예매한다. 하지만, 개인으로 갈 때는 인터넷 예매가 필수다. 예매할 때는 스케줄 코드로 예매하는 게 빠르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처음, 또는 개봉하기 힘든 영화들이 상영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관객과의 대화인 GV 행사가 같이 있는 영화의 경우, 예매경쟁이 인기 있는 콘서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코드를 적어놓고 예매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예매가 실패하게 될 경우 당일 현장예매를 하는 수밖에 없다.

# 02 영화제 1일차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계 인사들과의 오픈 토크나 야외 인사도 진행한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 앞 비프빌리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이벤트들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인해 영화의 전당 두레라움 광장에서 진행됐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운이 좋으면 감독이나 배우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으니 그 영화나 감독, 또는 배우에 대한 사전조사는 필수다.

나는 개막작인 장률 감독의 <춘몽>과 단편 영화로 유명한 <폴라로이드 작동법>, 그리고 최근의 <최악의 하루>를 연출한 김종관 감독의 신작 <더 테이블> 외에 세 개의 GV를 가졌다. 그리고 꾸준한 다작으로 사랑받는 배우 손예진의 오픈토크를 보기도 했다.

이 중 개막작이었던 <춘몽> GV와 손예진의 오픈토크에 대한 후기를 간단하게 풀어보겠다. 춘몽의 경우 현장예매를 통한 예매라 맨 앞인 A열 중간에서 관람했다. GV가 없었으면 정말 불편한 자리였겠지만, GV 덕분에 감독과 배우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춘몽 GV에는 장률 감독, 양익준, 윤종빈, 박정범 세 감독이자 배우, 그리고 배우 한예리와 이주영이 함께 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난 뒤 궁금한 점, 또는 생각을 물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② 춘몽GV

〈춘몽〉 GV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장률 : 제작할 당시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겠다는 것이 없다. 찍으면서 찾아가는 편이다. 이번 영화의 경우 세상이 어렵더라도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것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다.

〈최악의 하루〉 은희 캐릭터와 〈춘몽〉의 예리 캐릭터가 닮은 것 같은데, 캐릭터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나?

한예리 : 둘 다 개봉 시기는 비슷했는지 몰라도, 촬영 시점이 완전히 달랐다. 한 해가 바뀌고 난 뒤 춘몽을 찍었기 때문에 나한테 다르다. 〈최악의 하루〉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번 영화는 사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흑백이 유지되어 꽤 답답함을 느낀다. 흑시 의도한 건가?

장률 : 처음부터 의도했다. 찍을 때는 컬러로 찍긴 했지만, 편집할 때 잠시 고민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촬영했던 수색역 근처에 갔다 오면 그 장소의 컬러가 생각이 나지 않고 느낌도 답답하다. 그래서 흑백으로 처리했다.



③ 손예진 오픈토크

손예진 오픈토크

올해 개봉한 〈비밀은 없다〉는 굉장히 매니악한 영화였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작품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나리오다. 할 수 있는지, 정말 하고 싶은지 생각한다. 감독들과 상대 배우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영화 속 여배우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로 여배우가 주연인 영화를 관람하는 게 쉽지가 않아 안타깝다. 요즘 특히나 남자배우들을 멀티캐스팅한 영화가 많이 보여 여배우로서 아쉽다. 여배우들 멀티캐스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 강렬한 여배우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김혜수, 전도연, 그리고 내가 나오는 어두침침한 느와르 같은 것 말이다.

다음 작품 일정은 어떻게 되나?

아직 다음 작품을 정하지 않았다. 원래 차기작을 바로 결정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조금 쉬고 싶단 생각이 들어 아직 결정하진 않았다.

이처럼 나를 비롯한 많은 관객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의문점과 다른 생각을 질문함으로써 자기만의 영화를 만들어간다. 영화를 보고 들떠 있던 생각들을 혼자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질문과 답변으로 공유되는 것들을 통해 다른 관점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어 좋다. 덧붙여 오픈토크는 자주 보지 못하는 배우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배우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 그 배우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 03 영화제 2일차

인터넷 예매가 실패했을 경우 현장예매를 진행한다. 나도 개막작인 〈춘몽〉부터 〈위플래시〉를 연출했던 데미안 차젤레 감독의 신작 〈라라랜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신예 감독 자비에 돌란의 신작 〈단지 세상의 끝〉을 실패해 어쩔 수 없이 현장예매를 했다. 현장 매표소는 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진행하며, 인기가 많은 작품의 경우 밤새 줄을 서서 표를 구하기도 한다. 매표소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작품은 줄을 서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라라랜드〉의 표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맨 끝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꼭 당일 영화만 예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화, 영상 관련 학과만 신청할 수 있는 시네필의 경우 당일, 익일의 표까지 예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관객의 경우 당일의 표만 1인 최대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프레스 배지, 영화 관련 업계



종사자를 위한 영화제 배지, 아시아필름마켓의 참가를 원하는 마켓 배지 등 배지에 따라 혜택이 다르니 잘 알아보고 가길 권한다.

먼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관객 숙소를 제공한다. 그리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이다. 근처 숙소보다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자기가 원하는 날을 골라 묵을 수 있다. 숙박하게 되면 물품도 무료로 보관해주시니 연박을 하는 사람들은 맡기고 영화를 보러 가도 된다. 숙소도 조기매진이 될 수 있으니 신청은 서두르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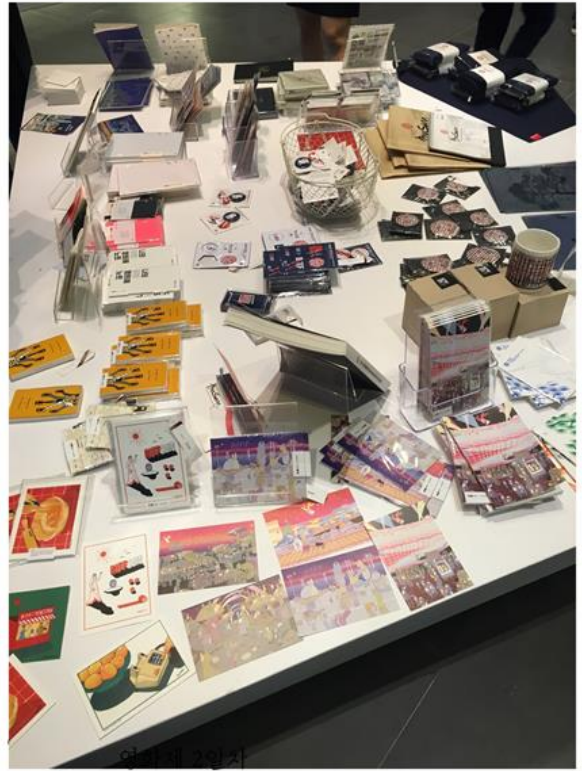
④ 현장예매 줄

## 04 영화제 3일차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열린다. 오픈토크는 두레아움 광장에서 열렸지만, 비프힐 내에서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벤트 스케줄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프힐 매표소 앞에는 개봉예정 영화들의 예쁜 디자인 포스터와 엽서가 무료로 전시되어 있으니 한두 장씩 보관해놓으면 꽤 보람차다. 비프샵도 운영한다. 엽서, 파일 홀더, 담요, 배지, 티켓북 등 부산국제영화제를 기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 둘러서 하나씩 사는 것도 좋은 기억으로 담을 것이다.

끼니는 영화의 전당 옆 광장에 푸드트럭이 줄지어 있는 곳에서 간단히 요기해도 된다. 또는 영화의 전당 바로 옆에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나란히 있으니 원하는 푸드코트를 골라 식사를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백화점 음식이다 보니 꽤 비싸니 꽤 많은 지출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 먼 거리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자. 영화의 전당과 CGV 센텀시티점은 그리 멀지 않지만, 해운대 메가박스는 꽤 먼 거리에 있다. 7-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참고하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나는 늦장을 부리다 결국 상영시간에 늦을 것 같아 택시를 탔다. 그때 나온 택시비는 6,000원이었다. 무료로 셔틀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생돈 6,000원을 날리고 택시를 탈 것인지,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⑤ 비프샵

## 05 다녀온 후

작년의 2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좋은 싫든 이미 예매가 되어있는 영화를 관람했어야 했다. 그 때문에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번 영화제는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 내가 봐야 하는 영화 위주로 직접 예매하다 보니 더 즐길 수 있었던 영화제였다. 좋은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도 따르는 법. 단체로 가는 경우 대절환 버스로 편히 다닐 수 있었고, 동기들과 같이 영화제에 온 것 자체가 좋았지만, 역시 혼자서는 쓸쓸하고 힘들었다.

생애 두 번째로 갔던 부산국제영화제, 더욱 재밌고 유익할 2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기약하며 글을 마친다.

## 진짜 내 꿈, 생각만 해도 가슴떨리던 경찰 공무원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일을 하고 꿈을 실현하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10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지만  
대학 시절 아무생각없이 느꼈던 10월의 바람보다 훨씬 못미친다는 걸 느끼며  
한편으론 그냥 이 순간만큼은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마음껏 만끽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도의 경찰공무원 도전기

근무를 하다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바람이 작년 이맘때쯤 경찰이 되기위해 사과대 운동장을 열심히 달리던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었다. 방송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으로 무작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하게 된 나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수업내용에 흥미를 잃은채 아무런 목표와 동기부여없이 하루하루를 의미없이 보냈다.

그렇게 시간을 즐기고 군대를 다녀오고 난 뒤, 나만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그 곳이 원래 나의 자리인 듯 자연스럽게 복학을 했고 1학년때와 똑같은 학교생활을 무려 2년이나 더 하고 나서야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선택한 진로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걸 인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허비한 시간을 생각하니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휴학을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라는 간판에 가려졌던 진짜 내 꿈, 생각만 해도 가슴떨리던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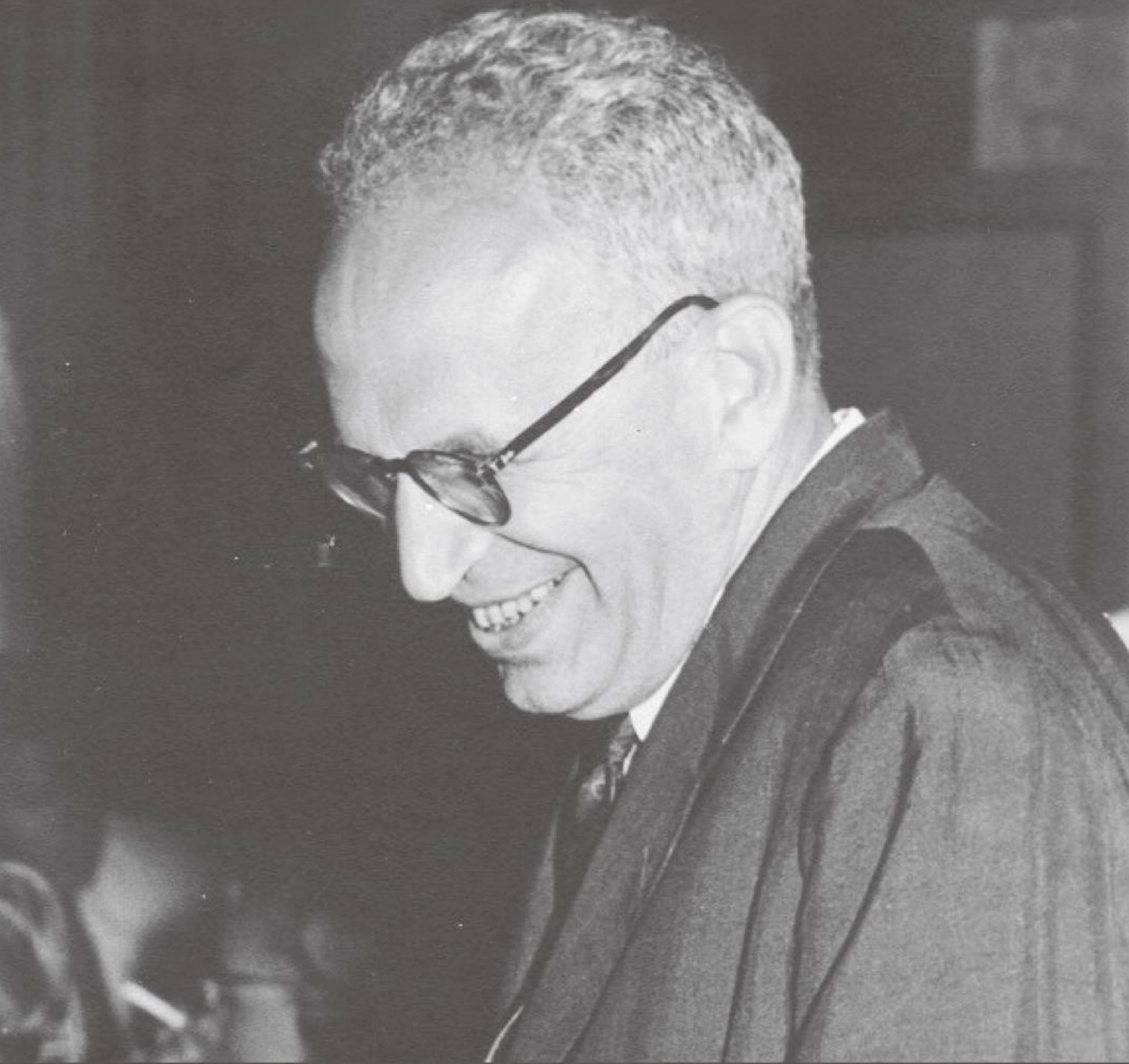
난 학원을 가지 않고 독서실에서 인강을 들으며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학원 왔다갔다 하는시간이 아까웠고 내 스케줄을 학원에 맞춰야 한다는 시스템이 싫었다. 그리고 통제기능을 해준다는 이유로 학원에 많이들 간다고 하지만 애초에 40대1의 시험을 뚫기위해선 누군가가 통제해줘야만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어차피 합격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는 하루에 잠을 8시간을 자더라도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남뒤에 생각해보니 단기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다. 물론 혼자 공부하다보니 외롭고 친구들은 나 없이도 잘지낼까?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주변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멋진문구를 책상에 써붙이며 5개월동안 열심히 공부에 전념한 뒤 첫 시험을 치렀지만 한 문제 차이로 필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든 생각은 한 문제를 더 못 맞춘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거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더 컸고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그 다음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중 절반을 떨어트리는 실기, 면접을 거친후 2015년 크리스마스날 경찰공무원 최종합격이라는 합격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요즘 공무원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 후배님들 중에서도 경찰뿐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시험에 도전하려는 후배님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예쁘고 빛날시기에 골방에 갇혀 합격이 불확실한 공부를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 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다. 그 말은 곧 내가 열심히 한다면 50명, 100명중 한 명 뽑는 시험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취업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후배님들이 잘되길 바라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일을 하고 꿈을 실현하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10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지만 대학 시절 아무생각없이 느꼈던 10월의 바람보다 훨씬 못미친다는 걸 느끼며 한편으론 그냥 이 순간만큼은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마음껏 만끽하라고 말해주고싶다.





## Paul Lazarsfeld 폴 라자스펠트

현대 커뮤니케이션학의 정립에 크게 기여한 윌버 슈람 (Wilbur Schramm)은 4명의 언론 학자를 지목했습니다.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well), 폴 라자스펠트(Paul F. Lazarsfeld), 칼 호블랜드(Karl Hovland), 커트 레윈(Curt Lewin)입니다. 그가 언급한 언론학 4대 학자를 가리켜 '언론학의 4대 비조' 라고 합니다. 네 명의 학자 모두 윌버 슈람과 동시대를 살아가며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여했습니다. 창간호에서는 해럴드 라스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윌버 슈람이 인정한 4대 언론학자 중 그 두 번째 폴 라자스펠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 초록 (抄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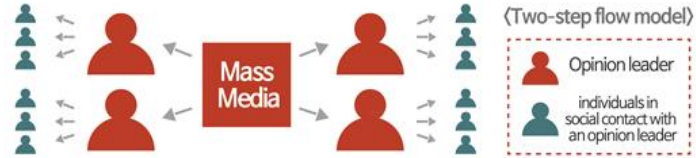
주로 라디오 연구를 하던 폴 라자스펠드는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응용사회과학조사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1940년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라디오가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결과 여론 지도자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2단계 흐름 모형(two step flow of communication)'이 탄생했습니다.

## STORY

폴 라자스펠드는 190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심리학자였습니다. 빅토르 아들러(Victor Adler)와 프리드리히 아들러(Friedrich Adler) 그리고 사회민주당 지도자인 파울 레너(Paul Renner)가 종종 폴의 집을 방문할 정도로 폴의 가족은 사회주의에 대한 애정이 깊었으며 학구적이고 교육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라자스펠드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라자스펠드는 중산층 계급 학생에게 정해진 교육과정을 받았습니다. 대학 진학 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에서 교육을 받은 후 오스트리아 수도에 있는 국립종합대학 빈대학교(University of Vienna)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1925년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직업인 공무원을 택하며 김나지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 학생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보이며 프로이트에 대해 다독(多讀)했습니다.

라자스펠드는 발달심리학을 개척한 샤롯데 뷔러(Charlotte Buhler)의 조교로 일하고, 1930년대 초에는 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샤롯데 뷔러 박사는 라자스펠드의 연구에 감동해 함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심리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에 보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라자스펠드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1년의 연구 펠로십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국인 오스트리아에서 파시스트 쿠데타가 일어나며 그의 부모는 경찰을 피해 저명한 사회주의자를 숨겨준 죄목으로 갇히게 됐습니다. 라자스펠드는 미국 이민을 결심하며 우여곡절 끝에 1935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다행히 그는 뉴딜 단체인 전국청년기구(National Youth Administration)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업적에 한 획을 그은 그의 행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1937년. 당시 10년 남짓 된 새로운 매체였던 라디오가 청취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던 프린스턴대학교 해들리 캔트릴(Hadley Cantril)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교수는 라자스펠드를 프린스턴대학교 라디오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1939년,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프랭크 니컬러스 스탠턴(Frank Nicholas Stanton)의 도움으로 컬럼비아대학교로 라디오 연구 프로젝트를 옮기게 됩니다.

라자스펠드는 1940년 오하이오주 이리카운티의 대통령선거, 1948년 뉴욕주 엘미라의 선거를 대상으로 두 차례 대규모 서베이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 사람이 왜 의견과 투표행위를 바꾸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대규모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로 '2단계 흐름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결과로 <국민의 선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됐습니다.

2단계 흐름 가설은 쉽게 말해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것은 주변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오피니언 리더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피니언 리더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에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 가정입니다. 이 가설은 1960년대까지 미디어 효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과거 미디어는 대중에게 강한 효과를 미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폴 라자스펠드의 '2단계 흐름 가설'을 통해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라자스펠드 덕분에 제한효과패러다임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폴 라자스펠드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가 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학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지난 호에서 살펴본 라스웰과 달리 1956년 이후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를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 중 마지막 20년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업적이 거의 없습니다. 학자로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더는 새로운 영역이 아니며 자극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여전히 '여행'중이다

“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비행기 타요”







우리는 여전히  
'여행' 중이다

# 01

우리는 라오스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나는 2주간 라오스에 왔었고  
그녀는 장기여행자였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야기  
무슨 맥주를 좋아한다는 이야기

그때 나는 소소한 대화들이  
서로에게 큰 호감으로 다가왔다

우연히 시작된 우리 만남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어졌다.

그렇게 다가온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전 한번 더  
만나고 싶었지만, 그날따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카톡만 보내고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에 도착하자 카톡이 와있었다.  
“저 이제 비행기 타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엔 남들처럼 로맨스영화도 여러 편 찍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도 많아졌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대구에 사는 대학생  
그녀는 서울에 사는 간호사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았고  
서로 사회적 갭도 컸었다.

그 차이를 줄이고자  
나는 조용히 휴학을 신청했다.





우리는 여전히  
'여행' 중이다

## 02

지금 생각해도 교수님들께는  
정말 죄송하다.

이후 결혼하기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책 한권 정도는 써야하기에 생략하지만  
분명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다.  
직장, 돈 등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자괴감에 빠지고, 싸우기도 했다.

나에게 결혼이란 마치  
모르는 나라로 떠난 여행 같았다.  
언어도 하나도 안통하고  
길도 전혀 모르겠고  
배낭도 잃어버리고  
지치고 실망스러운 때가 많았다.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이겨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선  
벌써 다음 여행이 기다려진다.

근데 막상 또 여러 문제들이  
터지고 나니, 여행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제 막 결혼이라는 고비를 넘었는데  
조금 쉬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아직도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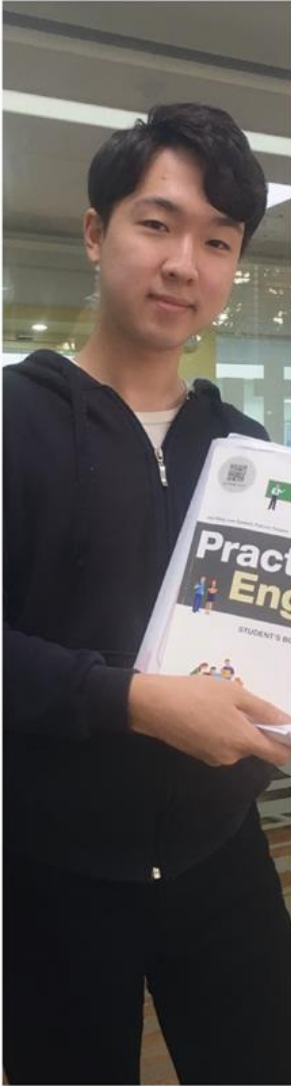


# 사랑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눈물을!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실천한 유광중 학생



페이스북(Facebook)에는 대구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페이지가 있다. 공론장이 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곳에 따뜻한 제보가 올라왔다. “9월 13일 동대구역 부근에서 농아를 가진 한 할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셨는데, 한 청년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과자와 음료수와 돈을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뒤에서 처음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할머니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학생에게 물어보니깐,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입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실천한 제보속의 멋진 주인공은 우리학과 1학년의 유광중 학생!



### 안녕하세요! 유광중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입학한 16학번 유광중입니다. 우리학과 랩실 중에 하나인 '씨투데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야구를 정말 사랑해서 야구 경기를 보고 기사 작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멋집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날 자세히 소개 좀해주세요.

집이 경기도 가평이에요. 집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동대구역에서 KTX 탑승 시간이 남아서 대합실에서 앉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이리저리 다니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저에게도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종이에는 “저는 농아입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어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할머니였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드시자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실 정도로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역사 내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서 드렸거든요. 수중에 있는 돈이 2천 원 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같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날도 쓸쓸했거든요.

### 페이스북(Facebook)에서 이슈화 될지 알았었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페이스북 '대구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저의 선행이 올라왔을 때, 저는 페이지를 구독하고 있지 않아서 그 소식을 보지 못하고, 동기들에게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 소식이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시고, 알아봐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려지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도움을 드린 적이 종종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도와드리고도 큰 자부심이라든지 그러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알려지고 나니까, 옳은 일을 했다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 건학이념 실현” \_ 보이기 위한 베풀이 아닌 낮은 자세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진심어린 사랑이 담긴 베풀은 스스로를 빛나게 했다. 우리학과 유광중 학생 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울렸다.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눈물을 떨어뜨렸던 이유는 고달픈 세상인줄로만 알았던 오늘날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지켜보던 사람들 또한 유광중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간애(人間愛)에 감동을 받았기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대학교는 만인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을 연마하여 건전한 인격을 소유한 지성인을 양성하는 데 건학정신을 두고 있다. 유광중 학생은 충분히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목표를 세운다는 것

김현

단지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학생부터 영화 감독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졸업생 김현 감독의 꿈이자 목표는 여전히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끝없이 달리는 중인 김현 감독이 여태 영화를 하며 보고, 듣고, 겪었던 이야기 유쾌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녹아있다.

에디터 / 윤유미



## 01. 간단한 자기소개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2013년 2월에 졸업한 08학번 김현입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잠시 휴학 중이며, 이상우필름에서 영화 연출, 조연출, 배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 02.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9년도 여름방학에 학과에서 개최한 '영화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제작을 경험하게 됐다. 내가 가진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던 시점에 '영화한마당'은 내게 기록제 같은 역할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영화 연출을 시작하게 됐다.

## 03. 어떤 방면이든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감독이 있나? 있다면 누군지,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이상우 감독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상우 감독님 덕분이고, 현재도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우 감독님의 색깔이 워낙 강한 터라, 내가 감당하기에는 실력이 미천하다는 걸 스스로 많이 느낀다. 그래서 보다 완곡한 표현 방식과 유머러스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의 작품을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같은 또래의 감독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영향을 받기도 한다.

## 04. 각본을 쓸 때 주로 소재는 어디서 얻는지?

주로 뉴스를 통해서 얻는다. 뉴스에서 얻는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단편적인 거라 영화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힘들다. 결국, 기승전결을 갖출 수 있는 소재인지에 대한 여부를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걸러내곤 한다. 아무리 독특한 소재라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만한 배경과 캐릭터, 사회적 메시지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있지 않다면, 영화의 소재로 빛을 발하기 힘들다.

## 04. 감독들을 보면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는 감독들이 꽤 많다. 혹시 그런 영화가 있나?

첫 단편영화 <우리할매>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에 대한 반항이 많아졌다. 나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짜증 나는 순간들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깊이 반성해야 할 만큼 지나쳤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나를 많이 아껴주셨다.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 당시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이런 내 모습을 담담하게 <우리할매>에 담았다. 나는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진심을 담담하게 풀어낸 <우리할매>는 여러 영화제에 초청받고 수상도 했다. <우리할매>를 통해 내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06. <우리 할매>부터 최근 프라이드 영화제에 출품한 <어느 여름날 밤에>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우리 할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영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 스태프 네 명이 모여서 만들었다. 지금은 영화를 만들면서도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 할매>를 만들 때는 순수했던 시절이라 가슴 깊이 남아 있다. 그 당시에는 그저 호기심을 풀어내고, 즐거움을 느끼고자 했던 것 같다. <우리 할매>는 그런 순수함이 묻어난 작품이다.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07. 특히 <어느 여름날 밤에>의 경우 성소수자들을 바탕으로 한 얘기다. 꽤 민감한 주제인데, 이런 주제들을 풀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출했나?

몇 년 전, 한 매체를 통해 철책선 인근에서 동성연애를 하는 북한 장교와 병사의 모습이 우리 군 CCTV에 포착됐다는 방송을 접하게 됐다. 접하자마자 소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있었다. 게다가 국내 퀴어(동성애)영화 중 북한을 다룬 영화는 거의 없었다. 또한 기존의 퀴어영화는 늘 소수들의 인권에 대한 메시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느 여름날 밤에>는 인권에 대한 호소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내가 인권영화요!'라는 다소 직접적인 형태가 아닌, 그저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했다.





## 08. 한국영화 산업은 전보다 점점 나아지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감독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영화산업의 안에는 상업영화가 있고, 독립영화가 있다. 상업영화는 또다시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구분할 수 있다. 독립영화도 마찬가지다. 저예산을 투자하지만,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홍상수, 김기덕 감독 영화)도 있고, 무명배우와 무명감독들이 만드는 독립영화도 있다. 결국, 한국영화산업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영화산업이 나아지고 있는지 짚을 필요가 있다.

나는 아직 독립영화를 만드는 무명감독이다. 그래서 독립영화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절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디지털 카메라가 도입되고, 영화를 찍고자 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과거보다 작품 수는 훨씬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적어도 산업이라 불리기 위해선 수익창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독립영화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IPTV 등 독립영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은 커졌지만,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독립영화보다는 예로영화가 오히려 돈을 벌기엔 더 쉽다.

독립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외면하는 소비자를 탓할 것인가, 예술이랍시고 어렵고 재미없는 영화나 만들어내는 독립영화 제작자 및 연출자를 탓할 것인가, 과연 누굴 탓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독립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다.

## 09. 영화를 연출, 제작하면서 힘든 점과 그에 대해 바라는 점?

연출 자체가 힘들지는 않다. 문제는 영화가 완성된 후부터 시작된다. 독립영화의 우선 목표는 영화제 진출이다. 이왕에 유명영화제를 가면 더욱 좋겠지만, 나는 끝없이 낙방하고 또 낙방하고 있다. 세계 3대 영화제는 커녕, 국내영화제도 빈번히 낙방하고 있다. 이런 순간들을 버티는 것이 정말 힘들다. '난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고 있다. 정말 소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화를 하는 이유는 '내가 만든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기 때문이다. 머릿속 아이디어가 수십 장의 종이에 담겨 수만 개의 텍스트가 되고, 그 텍스트는 영상이 되고, 그 영상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콘텐츠가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열이 생긴다. 영화를 찍는 후배들!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제작을 했으면 한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생긴다는 생각을 즐기고, 향후 영화제 진출 여부는 '운명'에 맡기길 바란다. 쉽지 않겠지만.



## 10. 부지런히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느 여름날 밤에> 이후의 작품 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최근 <자매의 공동묘지> (가제)를 촬영했다. 고요한 마을에 사는 식인자매의 사랑 이야기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코미디 장르라 촬영은 물론이고, 편집도 즐기면서 하고 있다. 내년 초에 <어느 여름날 밤에>를 개봉할 예정이며, <자매의 공동묘지>는 여러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그리고 남은 학업도 마무리할 생각이다.

## 11. 마지막으로 영화를 하고 싶은 학과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영화에 있어서 내 첫 번째 목표는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중 한 군데 진출한 다음에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후배들 앞에서 특강을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짜릿하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난 최고다! 후배들아 나를 따라라! 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 라는 속마음을 정당하게 알릴 기회니까. 매일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둔치를 폭풍질주 할 때마다 내 목표를 되새긴다. 이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내가 설정한 목표로 하루에 한 번 웃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후배들에게 말하자면, 제발 입으로만 목표를 말하지 마라! 말로만 하지 말고, MBC, KBS, SBS에 방청신청이라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라! 선배들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선배들하고 술 먹을 때만 "선배, 선배!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라는 식상한 멘트 좀 하지 말고! 제발! 너희 선배들 중에서 좋은 방송사, 언론사,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든가 010-5595-3544, kimhun6301@nate.com

후배들아! 난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자 제발! 교수님들 말 좀 잘 듣고! 우리학교 교수님 같은 분들 없다. 나도 아직까지는 사회가 정글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만,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정글이라고 하더라. 학교에서 다 빼먹고 졸업해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술도 좀 많이 먹지 말고! 야호 파이팅!





## 꿈을 가져라, 첫 걸음을 땀 새내기의 대학생활은?

### 나의 동굴, 꽃 길 걷기

Q. 안녕하세요. 이번 웹진 인터뷰를 맡게 된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16학번 허나희 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소현 :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16학번 권소현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Q. 네. 2학기가 시작되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현 : 학과 웹진에 참여하는 것이 저에게도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Q. 그렇게 생각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관해 몇 개의 질문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화하듯이 편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현 :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어떤 곳인가요?

소현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광고 홍보, 저널리즘, 영상, 커뮤니케이션 등을 배우지만, 근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학과에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MC PLUS 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MC PLUS를 통해 영화 리뷰나 여행 리뷰,

혹은 자신이 관심 있는 스포츠나 정치 분야 같은 기사를 쓰고 공유할 수 있어요.

Q. 맞아요. 저도 1학기에 MC PLUS를 쓰면서 처음으로 직접 기사를 쓴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누구나 내 글을 볼 수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것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관심 있는 뮤직비디오나 동물에 관한 글을 쓰다 보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럼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하신 계기를 여쭙봐도 될까요?

소현 : 학과를 지원할 당시 저의 꿈은 드라마 작가이자 PD였어요. 방송 관련 학과를 가는 것이 제 꿈을 이루기에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였습니다.

Q. 방송 관련 직업을 목표로 하고 계셨군요. 저희가 1학년 한 학기동안 저널리즘의 세계와 광고홍보의 세계를 배웠고 현재 영상미디어의 세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배우고 있잖아요. 입학 전에 생각했던 공부들과 비슷하셨나요, 아니면 많이 다르셨나요?

소현 : 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언론,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배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언론의 역사, 기자는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가 같은걸 배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은 1학기 때 배운 것하고 제가 예상했던 내용과 비슷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광고·PR을 배울 때는 조금 당황했었어요.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싶었죠. 그냥 막연하게 방송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방송에 쓰이는 영상 편집하는 기술이나, 영상을 만드는 기획하는 방법 같은 실무적인 걸 배울 줄 알았죠. 이와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취재방법이나 뉴스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 실무적인 것도 배워보고 싶은데, 나중에 꼭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나의  
 동굴, 꽃 길 걷기

Q.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입학하기 전 생각과 조금 달라서 어리둥절하기도 했었죠. 입학하면 바로 카메라 만지고 편집하고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실무적인 것을 배워보고 싶은 입장이라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입학 후에 신입생 OT, 개강파티, 체육대회, 힐링캠프, MT, 끈 체육대회 등 다양한 학과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중 가장 기억나는 행사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소현 : 제가 과 행사를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참석했던 것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4월에 갔던 MT인 거 같아요. 제가 춤 췄던 시간 말고, 다른 팀들이 춤추는 것을 구경했을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웃음) 저도 그때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조를 이뤄서 춤을 췄었는데 제가 진짜 몸치, 박치 예요. 어릴 때 율동이나 에어로빅 같은 건 취봤어도 그런 아이돌 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보는 거였어요. 연습은 했었는데 실전에서 처음부터 실수를 했었어요. 그 후에도 춤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날 이후로 그때 춤췄던 음악들을 절대 안 들어요. (웃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 동시에 가장 기억나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Q. 아이돌 춤을 태어나서 처음 취봤었군요. 그럼 외우는 것만 해도 정말 만만치 않으셨겠네요. 소현씨에게 다른 의미로 기억에 남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웃음) 그럼 또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것만은 자신 있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현 :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동아리 아닐까요? 아메바, 크레센도, 씨투데이 같은 동아리요. 우리 학과 동아리는 동아리별로 특색이 잘 드러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선배에게 배우기도 하고, 공모전 같은 스펙도 쌓을 수 있어 더 유익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학생들이 원하면 카메라 같은 촬영 도구들을 학과에서 빌릴 수도 있고, 편집실도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영상을 만들기에 좋은 것 같아요.

Q. 그럼 반대로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것만은 보완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소현 : 배울 수 있는 전공과목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1학년이라서 많은 수업을 듣지는 못했지만 광고, 저널, 영상 같은 이론 공부 말고, 실무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 실시한 '편집 기술'을 가르쳐주는 특강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속성만 듣는 거라서 사실 효율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편집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기술을 익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학년이 올라가면 그런 수업이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1학년 때 전공수업에 넣어서 스스로 영상편집을 하는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선배들이 하는 걸 보거나 본인이 직접 해본다고 해도, 편집 프로그램에 있는 기술들을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Q. 마지막으로 '나에게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란 \_\_\_다.'를 이유와 함께 완성시켜주세요.

소현 : 나에게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란 어두컴컴한 동굴이라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동굴의 입구뿐이고,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동굴이 뚫려 있는지 막혀 있는 지도요. 앞이 캄캄한 동굴 속 같아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른 채 무작정 가고 있는 상태. 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지만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도 마찬가지로 인거 같아요. 막막하고 답이 안 보여도 정신 차리고 뭐든 내가 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게 되요. 정신 차리고 어떤 활동이든 시도하다보면 컴컴한 동굴 속에서 나왔을 때 꽃길을 걸을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 만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옆구리를 에는,  
비로소 만추의 계절이 돌아왔다.  
10월의 어느 날, 다들 그 날을 느끼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있다.  
누구는 그해 가을을 담아두기 위해 낙엽을 수집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듣기도 한다.  
매해 찾아오는 10월의 어느 날을 위해 내가 보는 영화 <만추>는  
해마다 다른 감정을 선사한다.

L a t e A u t u m n



# 이렇게도 가슴 떨리는 말

1966년의 동명의 원본 작품을 리메이크했다. 탕웨이, 현빈이 주연을 맡았고, 감독은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가족의 탄생〉을 연출한 김태용이다.

내가 만추를 가을이 되면 꼭 보는 이유는 가을이란 계절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다. 화려한 영상미가 아니더라도 가을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연기하기는 쉬워도, 지는 낙엽을 연기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면 시작부터 톤 다운된 영상으로 한 번, 그리고 회 빛이 도는 배우들의 옷들로 두 번. 성큼 다가온 가을을 제일 먼저 시각으로 실감케 하는 영화다.



영화는 애나(탕웨이)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자연스럽게 애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극 중 애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담을 쌓아놓는다. 며칠 뒤에 감옥으로 돌아갈 걸 알기에 하는 일종의 체념일 수도 있다. 시계를 돌려주고, 명함을 버리고, 훈(현빈)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우리는 둘의 관계가 약간 비틀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놀이공원 범퍼카에서 한 더빙 장면이다. 그 장면을 기점으로 훈은 애나의 견고한 담에 틈을 내고는 결핍된 무언가를 충족시켜준다. 지하철역에서 훈에게 애나가 모르게 한 고백들, 발맞춰 걷다가 훈을 돌아보는 시선. 애나에게 훈이 더는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아닌,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점점 훈에 대해 생각한다.

## 〈만추(Late Autumn, 2010)〉

“금지 마요, 그럼 더 나빠져요.” “하오(좋네요), 화이(나쁘네요)” 훈과 애나는 점점 서로에게 녹아들어 간다. 그리고 애나가 왕징에게 고인 감정을 빼줬던 장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정을 삭이지 않고 화를 내며 운다. 그 감정을 빼게 도와준 훈은 애나에게 조금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는다. 한정된 시간 속에 감정을 교류하는 일은 썩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끝내 서로를 원하게 된다. 꽤 긴 시간의 키스가 증명이라도 하는 듯 가슴에 박혀 쉽사리 빠지지 않는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 할 연애도 하지 못했지만 사랑에 익숙한 남자, 결혼은 했었지만 사랑에 서툰 여자의 이야기는 요란하지 않게, 잔잔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정적이며 긴 시간 이어지는 테이크로 그 감정의 깊이를 더한다. 사운드트랙도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하다. 되도록 잔잔한 선율의 기타와 피아노 등으로 만든 사운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풍미를 더한다.

늦가을의 어느 날, 여자는 그렇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단번에 압축할 수 있는, 이렇게도 가슴 떨리는 말로. “안녕, 오랜만이에요.”







“잊지 말자.  
나는 부모님의  
자부심이다.”

글 / 손창빈

우리 부모님은 누구보다 유하시지만 심지가 굳게 있으신 분들이다. 세월의 모진 풍파(風波) 속에서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도망치지 않으셨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실한 사람이다. 항상 빨리 움직이셨고, 늦게까지 일하셨다. 가끔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적이 외롭게 느꼈던 있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오래간 적이 없었다. 생각도 못했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세상 최고로 착하다고 느낀다. 학창시절 잘못된 행동과 한심했던 모습을 이해해주시고 끌어 안아주셨기 때문이다. 다니지 않았던 시절이 떠오른다. 나는 무언가 결여된 청소년이었다.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면서도 무기력하면서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주기만을 바랐다. 어린 시절의 허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영들만 쫓다가 시작조차 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감과 슬픔을 느끼셨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언제나 끝까지 믿어주셨다. 그 믿음이 지금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를 아버지에게 드린 적이 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며, 취직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말이 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아버지는 못난 아들을 이해해주시고 안아 주셨다. 아버지는 삶으로써 지금까지 나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신다.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말이다. 오늘의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다. 반만이라도 따라가고 싶다. 어떤 일이라도 대충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되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느끼고 받는 사랑은 어떤 단 어로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다. 엄청나게 넓고 깊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일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모두가 부정한 일에 대해 행복하라고 하 더라도, 우리 아들은 주변에 무엇이 있든 정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이다. 나는 그 말에 내 평생의 삶을 밀어 볼 생각이다. 지금의 대학생활을 하면서 지겹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많았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버티게 된다. “내가 편해지고, 나태해지면 부모님의 마음은 아플까?”, “아버지는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실까?” 나의 포부는 크지 않다.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다. 부모님이 자랑할 만한 능력과 인성을 모두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세월이 지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부모님에게 “나 열심히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지금의 매순간을 열심히 살 생각이다. 행동으로써 말이다.

에디터 / 나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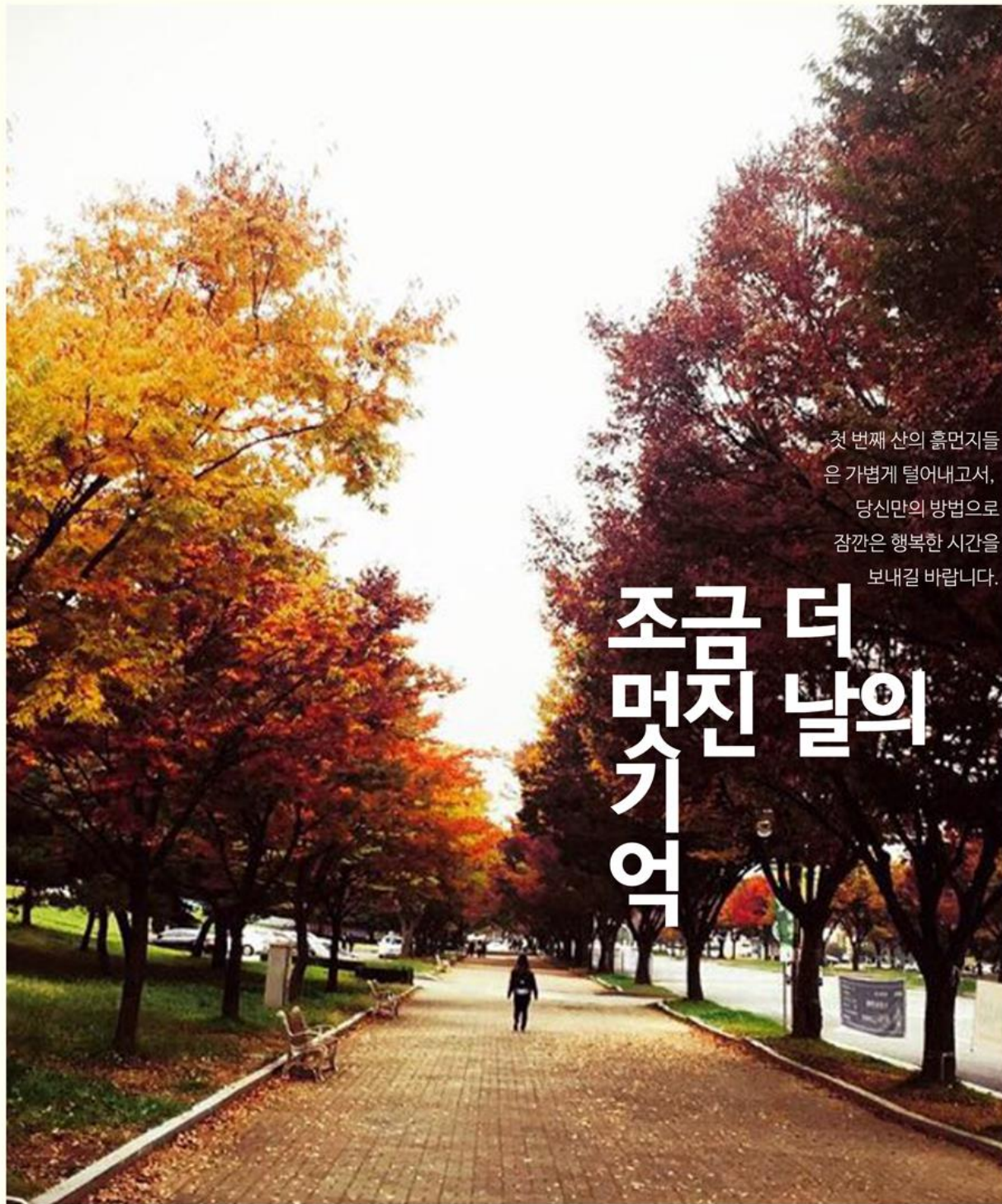




꽤 낭만적인 캠퍼스에서 보내는 가을 :

첫 번째 산의 흙먼지들은  
가볍게 털어내고서,  
당신만의 방법으로  
잠깐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조금 더  
멋진 날의  
기억





강과 산에는 주인이 따로 없다

보고 느끼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다

-법정-



가을의 절정을 달리는 10월의 중반, 유난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2학기의 나날들. 그리고 다가온 중간고사. 누군가 장난스레 4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10월, 우수수 떨어지는 은행 열매에 담긴 의미도 중간고사가 아닐까,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우리에게 다가와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은행 열매들, 2학기의 중간고사가 더욱더 지독하고 달기 싫은 것이 묘하게 은행 열매와 닮았다고 생각했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가 있는 서문에서 상대적으로 늘 거리가 많은 정문으로 가려면 꽤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 날도 돌아 돌아 정문으로 걸어가려던 중 친구 한 명이 아직도 이 길을 모르라며 소개를 해주더군요. 이 길을 보니 약간의 꿈수가 세상을 조금 더 재밌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남들의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심한 꿈수는 피해야겠지만 이런 귀여운 꿈수 하나 정도는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신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인문대학교에서 공과대학교로 넘어가는 길에 소나무 숲을 발견하던 날, 학교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울창한 소나무 숲, 그러니까 나무들이 뽕뽕하게 들어차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숲은 아니었지만, 학교 안이 아니라 공원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학교 안에 이런 신기한 쉼터가 있는 것. 우리 학교 꽤 낭만적이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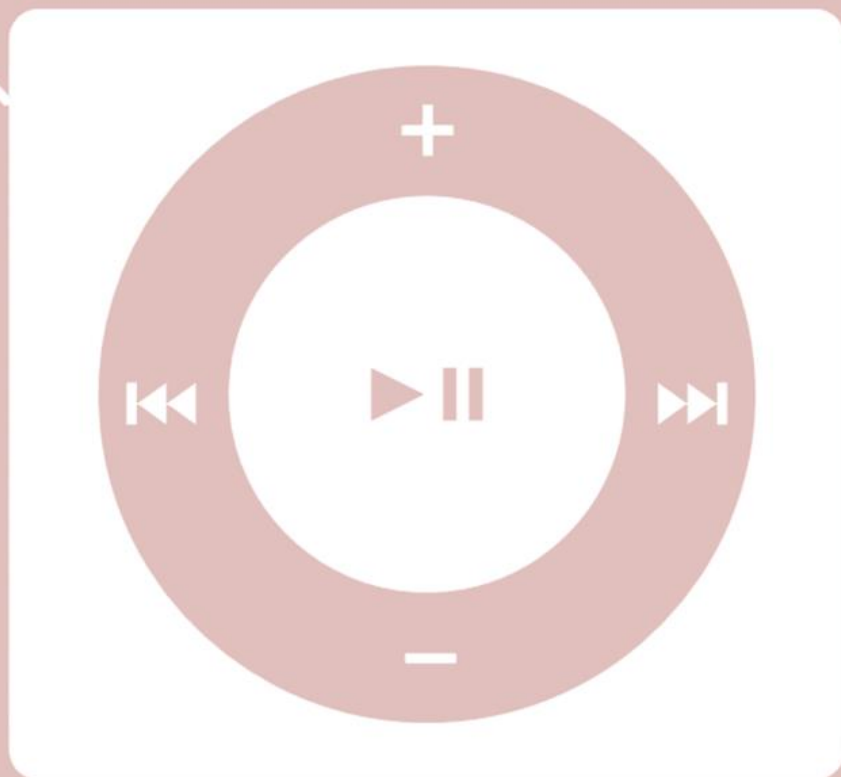




# ‘듣기’도 아는 것이 힘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독했던 폭염도 지나고 어느새 11월의 한가운테로 접어들었다. 옷은 여미게 만들고, 이른 시간에 어둠으로 덮이는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고로 책장에 묵혀뒀던 책들도 괜히 다시 꺼내보게 만들고, 감성적인 음악도 한번씩 찾아들게 되는 가을이 왔다는 뜻이다. 특히 음악은 세계의 만국 공통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분야인데,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푸념을 내뱉기도 한다. ‘요즘 노래들은 왜

다 죄다 사랑타령이야.’ 세상에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 사랑이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곡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니. 이러한 탓일까, 우리는 수많은 노래를 접하면서도 단순히 쉽게 흘러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흔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면? 혹시 사랑을 빙자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준비해봤다, 가을이라고 분위기에만 휩쓸리지 않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들. 읽으면서 BGM으로 함께 들을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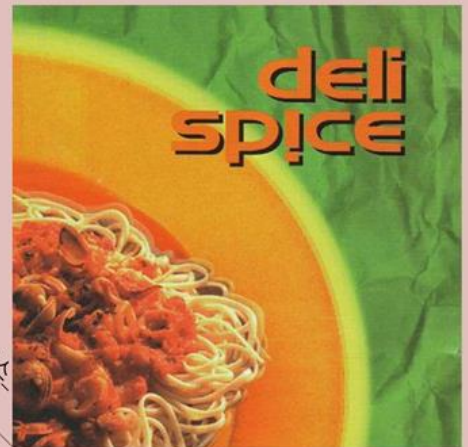


이적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우우-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우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우우-- 찬 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우우--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델리스파이스 ‘차우차우(너의 목소리가 들려)’〉 1997년에 데뷔했던 당시 신인 밴드의 첫 앨범, 첫 타이틀곡이다. 푸른빛을 띠는 앨범 아트에는 어딘가 촌스러움이 남아있지만 약 20년의 긴 시간동안 그들의 음악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다. ‘너의 목소리—리가— 들려’ 하는 몽환적인 부분은 무한도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등장해서 많은 이들의 귀에 익숙한 후렴구이기도 하다. 노래를 듣다보면 ‘애타게 찾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일까’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알고 보면 이 노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소위 ‘악플러들’이라고. 나쁜 기억일수록 잊고 싶어도 또렷해지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아도 오히려 더 잘 들리는 법. 회피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쁜 소리는 이 음악과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차우차우’라는 제목도 ‘자신이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저런 소리들 하지 말라’는 단호한 의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그야말로 오지라퍼들이 만들어낸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적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어쩌면 무한도전의 ‘맹공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적의 음악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는 대로’, ‘빨래’, ‘매듭’, ‘같이 걸을까’ 등 잠자던 감성도 깨울 수 많은 히트곡들을 작사/작곡한 가수이기 때문. 특히 2013년에 발매한 그의 5집 앨범 〈고독의 의미〉의 타이틀곡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은 최근 음악 예능에도 등장할 만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곡인데,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들으면 더욱 가슴이 찡해진다. 예전에 우리의 윗세대는 풍족하지 못하고 가난에 쫓기다보니 버려지는 아이가 많았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혼자 버려두기 전에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가서 놀게 해주고 엄마는 없어져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한 노래이기 때문. 비록 그 세대를 전부 공감하는 것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노래로 그 세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 탄생하게 된 곡.



델리스파이스  
차우차우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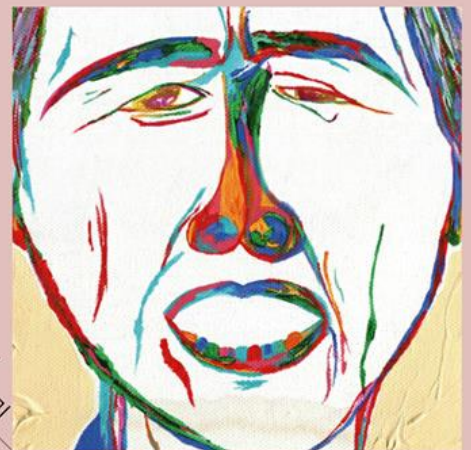


버벌진트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울기엔 년 충분히 예뻐,  
꺼내줄게 너 거기에서 사랑 때문에 울기엔 년 충분히 예뻐, 내가 네 곁에 있게 해줘'

〈샤이니 '너와 나의 거리(selene 6.23)'〉 이름을 채 외우기도 전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아이돌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주위에는 간혹 아이돌 가수의 노래는 듣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물론 그것도 개인의 취향이기에 존중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노래. 이미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사/작곡 활동을 하고 있는 샤이니의 멤버 중현은 작사노트를 통해 '달'을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이 곡의 가사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늘 같은 하늘에 떠있어도 너무 멀어서 달을 수 없는 달에 짝사랑하는 사람을 빗대어 표현한 곡. 사실 우리는 매일 달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는 하는데, 익숙함을 특별함으로 풀어낸 그의 작사실력이 그만큼 돋보인다. 박효신의 '동경'과 마찬가지로 연예인과 팬을 빗대어 표현한 것 같다고 해서 전국의 많은 순이들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버벌진트 '충분히 예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다고 건네주는 그의 위로는 당시 상처받은 많은 여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가사를 살펴보면 짝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남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작사를 맡았던 버벌진트에 의하면 텔레비전에서 남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자를 보고 지었던 곡이라고.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다. 뮤직비디오에서 종잇장처럼 풀썩 넘어지는 버벌진트가 안타까울 정도. 그 때문인지 가만히 듣다보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가 측은하기도 하고, 그러한 여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심정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원하지 않는 이별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너에게 난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하나, 스쳐 가잖아 네겐 특별하지 않아  
손을 더 뻗어도 온 힘을 다 해 뻗어도 넌 달지 않아 가까워진 듯 해  
설렌 맘에 불러봐도 대답 없어 넌, 절대로 달을 수 없나 봐'